



〈최후의 심판〉, 6세기, 작자미상, 모자이크, 산 타폴리나레 누오보 성당, 라벤나, 이탈리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마태 25,31-33)

[제1독서]..... 에제 34,11-12.15-17

[화답송] 시편 23(22),1-2,2,3-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1코린 15,20-26.2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마태 25,31-4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78] 영광의 왕께 찬미를
- 봉헌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주님, 이 아가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의 모친이신 이상옥(아가다)님께서
지병으로 11월 21일(화) 오후 8시(한국시각)에 선종(향년 86세)
하셨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이 아가다)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 (이 아가다)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이 아가다)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그리스도왕 대축일 복음 (마태오 25,31-46)

복음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릴 것이다.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때에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40 그러면 임금님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41 그때에 임금님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5 그때에 임금님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묵상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최후 심판 때에는 그동안의 모든 언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인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지녔지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죽음 다음의 삶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따돌리고 멸시받던 죄인들을 받아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에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생명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용기를 줄 때 상대방은 용기가 넘칠 것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부터 힘을 주고,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나 자신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사람 낚는 어부 성 안드레아

현대 미술의 중심이자 세계의 심장인 뉴욕시 5번가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인류 5천 년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하는 명소로 지난 해 7백만 명이 넘는, 세계 두 번째의 방문객을 자랑한다. 백과 사전식 수집품의 보고이자 지존이라는 별칭답게 시대를 막론한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2백만여 점의 영구 컬렉션과 상설 전시품 4십5만여 점을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성 안드레아 Saint Andrew’ 는 스페인 프라도미술관의 ‘성 안드레아와 성 프란치스코’ 에서 안드레아 성인만 분리해 복제한 축소판으로, 엘 그레코(El Greco, Doménikos Theotokópoulos 1541~1614)의 작업장에서 제자와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갈릴래아 출신의 어부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반석인 형제 시몬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12 사도 중 한 인물이다.

17세기의 화가 엘 그레코가 1세기 초기 기독교 시기의 안드레아 성인과 12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한 장면에 묘사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가 남긴 일련의 작품 8점 모두에 등장하는 대각선 X자형 십자가는 로마의 박해시기에 성인이 처형된 도구이다. 십자가에 기대선 성인은 수사학적 제스처와 과장된 자세로 원편의 보이지 않는, 익명의 진지한 대화 상대자를 향해 돌아선 모습의 독립된 화면이다. 강렬하고 뚜렷한 윤곽선으로 부각된 성인이 맨발로 딛고 선 거칠고 울퉁불퉁한 바위와 비현실적 그림자, 배경으로 제시된 현저히 낮은 수평선은 기념비적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회화적 장치이다. 자연광의 음영으로 생성된 성인 얼굴의 구조적 볼륨감과 질감은 자유로운 짧은 붓 터치와 감각적 표현으로 사색적 내면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관람객은 격동적인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 밑 성인 뒤편 구불구불한 나무줄을 따라 톨레도를 거쳐 빛나는 눈 덮인 산에 도착한다.

그리스 태생의 엘 그레코가 비잔틴 양식과 베네치아 화파를 거쳐 톨레도에 정착해 반종교개혁적 목적으로 제작한 성인의 모습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다. 길게 늘린 몸체에 녹색과 자주색의 질푸른 강렬한 베네치아 색채의 의상은, 특이한 공간 배치와 극적인 빛의 효과로 불안정하고 독특한 화면을 조성해 성인의 강렬한 영성을 입증한다. 화가 특유의 역동적 공간은 투박한 질감과 입체적 효과를 창출하는 임파스토(impasto) 기법의 실험적 화면으로, ‘안드레아의 십자가’ 로 불리는 X십자가는 성인의 신앙적 역사적 증거를 표명한다. 머리카락과 흰 수염으로 생성된 프레임 안의 관조적 표정과 왼쪽 아래를 빚겨 일별하는 심원한 눈빛은 명백한 손짓과 결합해 신중하고 담백한 12사도로서의 올곧은 성정을 드러낸다. 관람객은 스페인의 강한 가톨릭의 개혁과 신비주의의 열풍에서 마니에리스모 양식으로 창조된 안드레아 성인의 성숙한 신앙적 열정과 종교적 신비를 본다.

그리스도에게 선택된 12 사도 중 안드레아 성인의 지물은 염소, 낚시 그물, 복음서나 두루마리 그리고 X자형 십자가와 흰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1595
유채화 167x113cm



엘 그레코, <성 안드레아> 1610, 유채화, 109.9 x 64.1cm

묘사된다. 이 작품을 위한 엘 그레코의 습작 진품이 지난 6월 멕시코에서 발견되어 세계 미술계의 흥미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 안드레아의 상징적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 처형은 온당치 못하다는 요청으로 X자에 사지가 묶여 죽음을 맞고 형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묶여 순교한다.

사람 낚는 어부로 선택되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서 친밀한 공적 생활을 함께 한 안드레아 성인은, 최후의 만찬 참석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유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러시아, 그리스, 터키, 흑해에 복음을 전파했다. 안드레아 십자가의 X는 그리스어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첫 자이며 이름의 의미 또한 ‘처음 부름 받은 자’ 로 모든 기독교인의 근원이다.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인 11월 30일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대림은 인류의 구원자 주님이 오시는 축제로 성 안드레아의 순명에서 이어진 지극한 희망의 시기이다.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하상회 소식

하상회는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한양수, 유은형 형제의 생일을 회원들과 함께 축하하고 금화열, 김지현, 김기돈, 안순상 형제 그리고 병환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원응식 박사는 건강 비결에 관해 강의하면서 '골다공증 예방 운동법'을 설명했다.

하상회는 12월 임시 총회에서 새 회장단 선출을 할 계획이다.



안나회 소식

11월 안나회 월례회가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70명의 회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백인현 주임

신부는 회원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춥거나 눈이 많이 오면 성당에 오시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말했다. 이 스텔라 수녀는 11월 16일 ‘성녀 젤뚜루다 축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천명의 영혼을 구한다”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들은 백인현 주임신부의 어머니 이 아가다 자매를 위한 기도와 함께 주임신부의 영명축일(11월 30일)을 기도도 계속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11월에 생일을 맞는 8명의 자매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은총의 모후 꾸리아

꾸리아 월례회의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단장 정우진 미카엘)와 은총의 모후 꾸리아(단장 이순임 헬레나)의 11월 월례회의가 19일(일) 오전 11시 40분 하상관에서 있었다. 31명과 40명의 꾸리아 및 브레시디움 간부들이 각각 참석한 이날 회의는 묵주 기도예에 이어 상급평의회 소식, 사업보고 및 기타 사항 전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2월 3일(일) 예정된 연차총친목회의 참석자 및 개근상 대상자를 11월 26일까지 꾸리아에 통보할 것을 공지하였다.

Religious Studies

Feast of Christ the King 2017 November 26



The Solemnity of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Feast of Christ the King, is a relatively recent addition to the Western liturgical calendar, having been instituted in 1925 by Pope Pius XI for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1970 its Roman Catholic observance was moved to the final Sunday of Ordinary Time.

Therefore, the earliest date on which it can occur is November 20, and the latest is November 26. Traditional Catholics observe it on its original date, the last Sunday of October. The Anglican, Lutheran, and many other Protestant churches adopted it along with the Revised Common Lectionary, occasionally referring to it as Christ the King Sunday. It is also observed on the same computed date as the final Sunday of the ecclesiastical year, the Sunday before the First Sunday of Advent, by Western rite parishes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Outside Russia.

Roman Catholics adhering to the Extraordinary Form of the Roman Rite as permitted under the motu proprio *Summorum Pontificum* use the General Roman Calendar of 1960, and as such continue to observe the Solemnity on its original date of the final Sunday of October.

Prayer to Christ the King

Christ Jesus, I acknowledge You King of the universe.

All that has been created has been made for You.

Make full use of Your rights over me.

I renew the promises I made in Baptism, when I renounced Satan and all his pomps and works, and I promise to live a good Christian life and to do all in my power to procure the triumph of the rights of God and Your Church.

Divine Heart of Jesus, I offer you my efforts in order to obtain that all hearts may acknowledge your Sacred Royalty, and that thus the Kingdom of Your peace may be established throughout the universe.

A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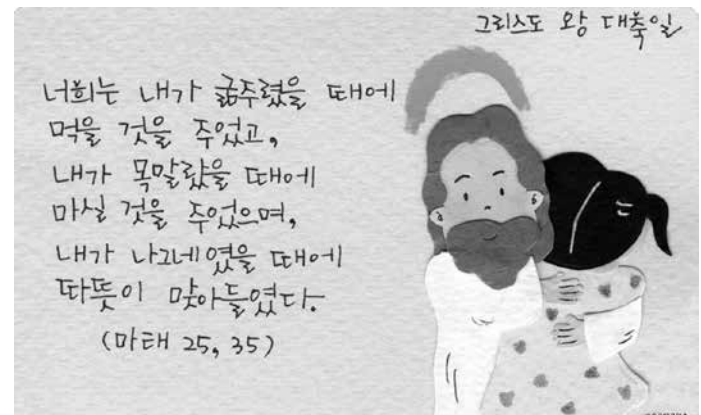
Q & A

Q What is the meaning of Christ the King?

A Christ the King is a title of Jesus Christ. It refers to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where the Christ is imagined a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as opposed to the secular title of King of the Jews mockingly given at the crucifixion).

Q What is the liturgical color for Christ the King?

A The feasts of Christmas Day and Christmastide, Epiphany Sunday, Baptism of the Lord Sunday, Transfiguration Sunday, Easter Season, Trinity Sunday, and Christ the King Sunday are represented by white. Green is the color for periods of Ordinary Time.



ANNOUNCEMENT

1. 1st day of First Holy Communion Class

- **When** : Dec. 6(Wed), 7:40pm
- **Where** : Hasang Building room # 106

2. Parents Meeting for First Holy Communion Class

- **When** : Dec. 6(Wed), 8:00pm
- **Where** : Hasang Building room # 110

3. CCD Christmas Pageant

- **When** : Dec. 10(Sun), 1:30pm -3:00pm
- **Where** : Parish Hall

4. CYO Winter Retreat

- **When** : Dec.15(Fri), 6pm - Dec. 17(Sun), 1pm
- **Where** : Camp Highroad • **Cost** : \$40 / participant

2017년 미 꾸르실료 동중부 송년 울뜨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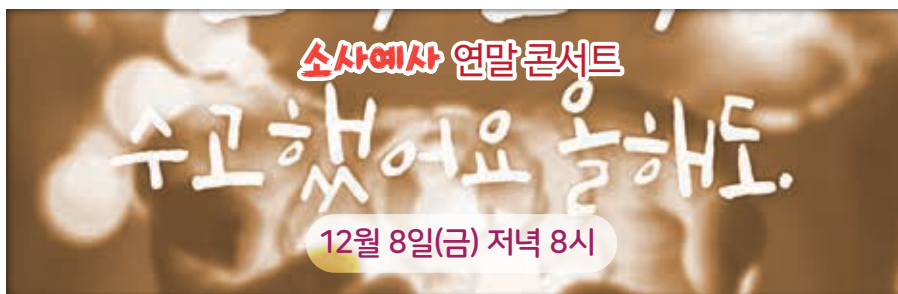


2017년 미 꾸르실료 동중부 사무국 송년 울뜨레아가 11월 19일(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워싱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열렸다. 알링턴 본당을 포함한 워싱턴, 볼티모어, 피츠버그, 조지타운 그리고 리치먼드의 꾸르실리스타 200여 명은 꾸르실료 이준성(요셉) 신부와 함께 2017년 한 해 동안의 꾸르실료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알링턴 본당 서종원(베드로) 부주간이 2018년 꾸르실료 동중부 주간으로 역임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꾸르실료 동중부 사무국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식사 후에는 각 성당의 여성 16차 꾸르실리스타들이 장기자랑 경합을 벌였다. 알링턴 본당의 여성 16차 '은총'팀이 '야광봉 난타'로 기립박수를 받으며 압도적인 지지로 우승을 거머쥐어 5년 연속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선후배 꾸르실리스타들은 내년 송년 울뜨레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손에 손잡고 서로를 다독이며 2017년 송년 울뜨레아를 훈훈히 마무리지었다.



레지오 마리아 가두선교단 본격 가동

10월 29일 발대식을 가진 본당 레지오 마리아의 가두선교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1월 8일 주님의 종 마리아 뿌레시디움(단장 박혜정 올리아) 단원 3명을 시작으로 12일 증거자의 모후 뿌레시디움(단장 민인숙 데레사) 단원 4명, 15일 사랑하을 어머니 뿌레시디움(단장 조경미 안젤라) 단원 3명과 사도들의 모후 뿌레시디움(단장 김혜빈 헬렌) 단원 3명, 그리고 19일 기쁨의 어머니 뿌레시디움(단장 조명호 바오로) 단원 3명 등 총 17명의 단원들이 센터빌과 웨어팩스의 한인 식품점 앞에서 쇼핑객들을 상대로 가두선교에 임했다. 현재 42명의 레지오 단원으로 구성된 가두선교단은 매주 가두선교를 통해 북버지니아에 가톨릭을 전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님의 종 마리아



증거자의 모후



사랑하을 어머니

기쁨의 어머니



사도들의 모후

1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의무 대축일 미사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2월 8일(금) 오후 7:30

2 전신자 대림 특강

- 일시 : 12월 7일(목) 오후 7:30 - 9시
- 주제 : 하느님께로 돌아감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루카 15,20)
- 강사 : 이상진 아모스 신부

3 전신자 대림 피정

- 일시 : 12월 14일(목) 오후 7:30 - 9시
- 주제 : 내게 오시는 주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준비물 : 연필, 펜)
- 강사 : 홍철평 수녀
- 문의 : 김우기 안드레아 (703)385-1305

4 대림 합동 고해 성사

- 일시 : 12월 13일(수) 오후 3시-5시, 오후 7시-9시

5 레지오 마리아에 연차 충전목회

- 일시 : 12월 3일(일) 오후 6시, 친교실
- 대상 : 행동단원 (회비 : \$20)

6 K of C 정기모임

- 일시 : 11월 26일(일) 오전 11:30(B-1,2)

7 병자영성체

- 일시 : 12월 1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264-0050

8 성체강복

- 매월 첫째 금요일(12월 1일) 미사 후에 “성체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9 요한회 정기총회

- 일시 : 12월 3일(일) 오전 11:30(B-3)

10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2월 3일(일) 오전 11:30(B-3,4)

11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2월 3일(일) 오후 1시(B-1)

12 청소년 사도회

- 일시 : 12월 3일(일) 오후 1시(B-3,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1월 26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8시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K of C 정기모임(오전 11:30, A-3,4), 재속회 피정 및 미사(오전 10시-오후 3:30), 주일학교 휴강
27일(월)	연중 제34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8일(화)	연중 제3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29일(수)	연중 제3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30일(목)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2월 1일(금)	연중 제3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병자영성체,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회장단회의(오후 8시)
2일(토)	연중 제34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파티마 첫 토요일(친교실), 파티마 사도직 셀모임(오후 3시, B-4), ME 연말파티(오후 8시, 친교실)
12월 3일(일)	대림 제1주일	요한회 정기총회(오전 11:30, B-3),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3,4), 하상 성인학교 종강 및 발표/전시회(오전 11:30, 친교실/B-1,2), 성모회(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레지오 연중(오후 6시, 친교실)

13 동전모으기 저금통 배부 (복지부 주관)

- 불우 이웃돕기 동전모으기 저금통을 11월 26일부터 배부할 예정입니다. 대림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공헌 대축일(1월 7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동중부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 2일(토) 7시 30분
-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ME부부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김생금 레지나 (703)477-2446

15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종강식 및 발표/전시회

- 일시 : 12월 3일(일) 오전 11:30(친교실, B-1,2)
- 가을학기 동안 수업한 과목별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참석하시어 즐겁게 관람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율리야나 교장 (703)217-2775

16 건강관리 세미나 (교육부 주관)

- 일시 : 12월 3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겨울철 체온관리 및 면역력 증진법 - 한의학의 중심으로”
- 강사 : 유제운 요셉(한의원 원장)
- 문의 : 김우기 안드레아 (703)395-1305

17 K of C 송년파티

- 일시 : 12월 9일(토) 오후 6:30, 친교실
- 연말 송년회에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하진 (703)376-1372

18 CYO Winter Retreat (9학년-12학년)

- 일시 : 12월 15일(금) - 12월 17일(일)
- 장소 : Camp Highroad
- 등록 : 교실 또는 사무실(1인당 \$40)
- 문의 : 이화준 아우스딩 (703)627-0799

19 2018년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습니다.

20 청국장 가루 주문

- 성모회에서 청국장 가루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 문의 : 장 에디타 (703)973-7159

21 셔틀 버스 안내

- 12월 3일부터 Northrop Grumman 주차장에서 성당까지 오는 운행 시간에 10시와 10시 10분이 추가됩니다.

성 안드레아 영명축일(11월 30일)을 맞으시는 백인현 주임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당 입구 Rippling Pond Dr에 들어오실 때 사고 위험이 높으니 천천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마당 잔디에 휴지, 캔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마무리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1월 30일(목) 오후 5:00-6:00
12월 1일(금) 오후 8:00-9:00
12월 3일(일) 오전 6:00-7:00

- 황창연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 여행 :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분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1월 19일 (연중 제33주일)

주일헌금	\$ 8,056.00
교무금	\$ 8,757.60
교무금(크레딧카드)	\$ 6,210.00
특별헌금	\$ 200.00
2차 헌금	\$ 2,834.00
합계	\$ 26,057.6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율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영(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안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학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전선희(데레사),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산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자노), 이슬(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병기(펠릭스), 윤백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안토니오),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양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자(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릴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 디 케 어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 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피아노 레슨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 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DC 703-815-2300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교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